

“신하균 덕후”...쿠팡 ‘유니콘’, 유병재와 시너지 낼까

신하균 ‘위기일발 풍년빌라’ 이후 12년만에 시트콤 도전
영화 ‘극한직업’ 이병헌 감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

영화배우 신하균이 ‘위기일발 풍년빌라’(2010) 이후 12년만에 시트콤으로 돌아왔다. 유병재가 집필한 쿠팡플레이 ‘유니콘’이다. ‘신하균 덕후’라며 팬을 자처한 유병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신하균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유니콘 제작발표회에서 “‘스티브’는 모두 ‘노(NO)라고 할 때 ‘예스(YES)를 외치는 인물’이라며 “다소 엉뚱하지만 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과 나이답지 않은 귀여움이 있다. 가슴이 따듯한 사람이라서 끌렸다”고 밝혔다.

“(유병재) 내 덕후인 줄 알고 있었다. 첫 만남때부터 이야기하더라. 나도 몰랐던 모습을 작품에 담았더라. 극본을 보면서 놀랐다”면서 “난 항상 작품에 맞춰서 연기와 톤을 조절한다. 이번에도 스티브는 어떤 사람이고,

유니콘에 맞는 톤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이 이야기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 시청자들이 많이 즐거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니콘은 스타트업 ‘맥콤’ CEO 스티브와 직원들의 분투기를 그린다. 원진아를 비롯해 이우진, 김영아, 이종욱, 배운경 등도 힘을 신는다. 영화 ‘극한직업’(2019) 이병헌 감독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다. 이 감독과 함께 드라마 ‘멜로가 체질’(2019)을 만든 김혜영 PD가 연출한다. 넷플릭스 스탠드업 코미디쇼 ‘b의 농담’(2018) 유병재와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2019) 인지혜 작가가 극본을 쓴다.

유병재는 “정말 오랫동안 신하균 팬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스티브는 신하균 외에는 상상도 못하는 역할이다. 스타트업 벤처 사업

의 역사를 관통하는 인물인데, 나이가 있고 귀여우면서도 미친듯한 모습을 보면 신하균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윤이 좋아서 이렇게 함께 작업하게 됐다. 작품 군데 군데 스티브가 아니라 신하균에 관한 오마주 에피소드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둘 다 내성적이어서 서로를 잘 바라보지 못한다”면서 “유니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 내가 실제 속한 곳이 스타트업 회사라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쓴 건 처음인데, 쓰면 쓸수록 더 애정이 생겼다. 최대한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극본을 쓰면서 나도 놀랄 정도로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가 많더라. 스스로 ‘와, 내가 이걸 썼네’ 하면서 많이 놀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원진아는 처음으로 시트콤 연기에 도전한다. 미래혁신장의력팀 ‘에슐리’로 분해 신하균과 티격태격할 예정이다. “좀 더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안 해본 작품을 하다가 보니 선배, 동료들과 호흡하는 방식도 달랐다. 같이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호흡해 갔던 경험이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다 처음 해보는 듯한 느낌의 연기가었다.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모두가 합심해 만든 작품”이라며 “배우들이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귀엽게 나온다. 재미와 감동이 있다”고 했다. 26일 오후 8시 첫 공개.

블랙핑크, 또 유튜브 기록...‘핑크베놈’ 뮤비 24시간 조회수 1위

지난 19일 공개돼 하루 동안 9040만뷰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부문에서 여성 아티스트 세계 최고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22일(미국 시간) 유튜브가 발표한 공식 집계 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는 지난 19일 공개돼 하루 동안 약 904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블랙핑크의 기존 히트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8630만)를 뛰어넘은 성과이자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 공개 당시 동시 접속자 수(YouTube Premiere)는 총 259만

4962명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K팝 걸그룹 최다 기록이다.

앞서 K팝 걸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29시간 35분)로 1억뷰 달성에 성공한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 자리를 4일째 지키고 있다.

음원은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74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특히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톱 송 글로벌 차트서는 3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스포티파이 톱 송 글로벌 차트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한 K팝은 그동안 없었다.

내달 정규 2집이 나오고 10월엔 월드 투어가 시작되는 만큼, 블랙핑크 열풍은 당분간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YG는 “블랙핑크의 본격적인 컴백 무대 활동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데 내달 16일 이들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이 나오는 점을 떠올리면 ‘핑크 베놈’의 성적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김호중의 ‘인생은 뷰티풀’ CGV 단독 개봉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두 번째 극장영화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 개봉일이 확정됐다.

23일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트로바티” 김호중의 두 번째 극장 영화이자 이탈리아 음악 여행을 담은 클래식 공인 무비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가 9월 7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며 “스크린X 포맷으로 해당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김호중의 모습이 담긴 특별한 선물들도 다양하게 주어질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는 2020년 개봉한 김호중의 생애 첫 팬미팅 무비 ‘그대, 고맙소’에 이은 두 번째 영화다. 김호중의 이탈리아 여행을 담은 로드 무비에, 이 영화만을 위해 준비한 미공개 무대가 더해질 예정이다. 특히 스크린X관에서는 3면을 모두 채우는 공연 장면이 김호중의 노래까지 합쳐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스크린X 오리지널로 촬영된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는 개봉 1주차에 스크린X로 관람하면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리뉴얼 된 CGV영등포 스크린X에서는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는데 개봉 1주 차에 해당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면 모든 관객들에게 ‘스크린X 팝업 카드’가 선착순으로 증정



된다. 한편, 추석을 겨냥해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는 9월 7일부터 스크린X뿐만 아니라 일반 영화관인 2D로도 관람할 수 있다.

여수시 7번째 웹드라마 ‘무지개’ 서울 웹페스트 ‘특별상’

특별상 수상으로 작품성 인정...LA 웹페스트 공식 초청



여수시가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한 웹드라마가 각종 웹드라마 영화제에서 해마다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22일 여수시는 제작·발표한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무지개’가 제8회 서울 웹페스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LA 웹페스트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시 웹드라마는 2016년 ‘신지개의 사랑이야기’부터 이번 ‘무지개’까지 7년 연속 여수=기동취재본부

웹페스트 수상으로 작품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무지개’는 아름다운 음악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악공청에서 시작해 현재의 버스킹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일곱 명 무지개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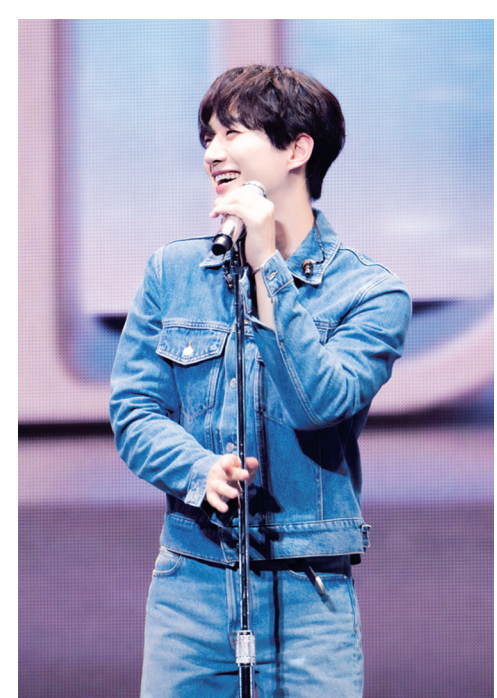
일곱 색깔 무지개와 음악의 7음계처럼 흑과 백이 없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웹페스트는 웹드라마 전문 국제영화제로 올해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구로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됐다.

해의 28개국 151편, 국내 작품 40편 등 총 191편이 열린 경쟁을 펼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7년 연속 수상으로 여수시 웹드라마의 작품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웹드라마 ‘무지개’는 여수시 유튜브 ‘힐링 여수야’를 통해 8월 23일 첫 공개된다.

이준호, 日 팬미팅 성료...‘100번째 솔로 공연’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일본 공연을 성료했다. 2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따르면, 이준호는 지난 20-21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팬미팅 ‘2022 팬콘 ‘비포 미드나이트(Before Midnight)’를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 2018년 12월 일본 단독 콘서트 ‘준호 (프롬 2PM) 라스트 콘서트 ‘준호 더 베스트’ 이후 약 3년8개월 만에 방문한 부도칸에서 2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했다. 마지막 날인 21일 공연은 스트리

밍(Streaming) +, 스테이지크라우드(Stagecrowd) 등 현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온라인 유료 생중계됐다. 일본 전국 영화관에서 라이브 뷰잉으로 상영됐다.

오프닝 곡 ‘플래시라이트(FLASHLIGHT)’로 시작한 이번 공연은 ‘이준호와 함께 하는 로맨틱한 여름밤’을 주제로 펼쳐졌다. 설레는 오후, 감성적인 저녁, 뜨거운 열기의 밤까지 어느 여름날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구성했다.

자신의 솔로곡뿐만 아니라 영화 ‘라디오 스타’ OST인 ‘비와 당신’, 영국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의 ‘워터멜론 슈가(Watermelon Sugar)’도 즉석에서 들려줬다.

특히 이준호는 일본 부도칸 2회차 공연을 끝내며, ‘동산 100번째 솔로 공연’ 기록도 달성했다. 2013년 일본에서 개최한 첫 솔로 투어 ‘키미노 코에’부터 공연이 누적돼 온 기록이다.

이준호의 이 기록을 축하하기 위해 21일 공연 말미 특별 이벤트가 준비됐다. 앙코르 곡 ‘세이 예스’ 무대 후 현지 팬들의 애정이 담긴 수많은 메시지가 짝짝 공개됐다. 관객들은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라고 적힌 슬로건을 힘차게 흔들며 축하를 보냈다. 이준호는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정말 돌아왔다는 실감이 든다”고 베풀었다.

이준호는 지난해 말 MBC TV 드라마 ‘웃음 매 밝은 끝을’을 통해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남자 가수로는 처음으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마마무, 데뷔 8년 만에 첫 유닛 ‘+’...솔라·문별 듀오

오는 30일 싱글 발표

그룹 ‘마마무(MAMAMOO)’가 데뷔 8년 만에 첫 유닛을 선보인다. 23일 소속사 알비터블유(RBW)에 따르면, 마마무 멤버 솔라·문별로 구성된 마마무 플러스(마마무+)가 오는 30일 싱글을 발표한다. 유닛명인 ‘마마무+’는 기존 마마무에 더해 (+) 새로운 콘셉트와 음악 등 한계를 두지 않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마무는 지난 2016년 연 ‘마마무 첫 단독

콘서트 ‘무지컬(MOOSICAL)’에서 선보인 유닛곡 ‘엔젤(Angel)’, ‘답답(DABDAB)’을 공연 이후 음원 발매한 적은 있긴 하다. 그런데 정식으로 유닛 그룹을 결성한 것은 데뷔 이후 ‘마마무+’가 처음이다.

RBW는 “마마무 유닛 프로젝트의 서막인 ‘마마무+’는 마마무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마마무는 지난 2014년 데뷔 이후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하며 ‘뽀빠미’로 자리잡았다. 휘



인, 화사, 문별, 솔라 모두 솔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